

사·부·대·중

내가 불자인가?

가끔씩, 나는 내가 왜 불자인가를 자문하곤 한다. 불교교리에 관한 책을 몇 권 읽고, 절이 가진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주위 가까운 분들이 불의덕권을 당하면 절에 천도재를 모시고... 그래서 나는 불자인가?



임동현 서울 봉은사 연구실장

그러나 뭔가 허전하다. 교리를 조금 안다고, 부처님 전에 3,000배를 10번 한다고 해서 불자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는 마음이 있으면 불자인가?

그럴 것이다. 부처님 말씀의 진리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불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출발점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이성적 사고로는 불교의 진리성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불자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머리에 한정되어 있고 온갖 잘못된 습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믿

음은 거짓이고 그래서 나는 불자일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깜깜한 밤의 길 안내자'라고 비유하셨다. 그 길을 가고, 가지 않고는 부처님의 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뉘이라고 강조하셨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 최소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책으로, 머리만으로 그 길을 그려보면서 마치 길을 가고 있는 양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할 때면 매년 스스로 초라해짐을 느끼곤 한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인 듯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도, 말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엄습한다.

<금강경>을 수백번 읽고, <화엄경>을 닦도록 읽었다 해도, 만 배, 십만 배를 한다고 해도, 5계 중 하나를 실천할만 못할 것이다.

타성과 관성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떠한 공부도, 수행도 다 부질없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연말연시 기도처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새해 맞자

또 한 해가 저문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2001년. 세월은 무상하게도 그 언덕을 넘어간다. 어제 진 해가 오늘 떠오르는 해와 다를 바 없었지만, 조용한 산사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들과 해넘이, 해맞이 법회를 여는 사찰이나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한 전국외 기도처를 찾아 모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보자.

●해넘이, 해맞이 법회 여는 사찰

전국 각 사찰에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해넘이·해맞이 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강화 진동사는 29일 오후 5시 대웅전에서 이애주 서울대 교수의 승무와 바라춤 등 해넘이 흥공연을 갖는다. 032937-0125

전국적불교연합회는 건봉사에서 월도컵 원만성취를 위한 새해맞이 철야정진기도를 한다. 31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출발, 건봉사에서 철야정진기도를 하고, 동해 화진포에서 해돋이 기도를 한다. 02732-1215

경주 불국사는 31일 불국사 경내에서 국악 공연 등의 산사음악회를 가진 뒤 밤 11시부터 제야 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자정에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한다. 석굴암에서는 철야정진기도를 할 예정이어서, 이를 마친 뒤 갖는 석굴암의 일출은 장관을 연출한다. 054746-9912

울릉도의 진각종 금강원은 31일 밤 11시부터 새해맞이 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다. 054791-2465

동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자랑하는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과 함께 1월1일 오전 9시 의상대에서 해맞이 법회를 갖는다. 033672-2447

전남 해남 미황사는 31일 오후 땅끝마을 봉화대에 불을 지피며 올해의 마지막 해를 지켜보는 해넘이를 한 뒤 달마산에서 일출을 맞이할 예정이다. 061533-3521

제주 약천사에서는 31일 오후부터 1080배 참회정진 법회를 갖고 송악산으로 옮겨 해맞이 법회를 갖는다. 064738-5000

이밖에 여수 항일암과 서산 간월암 등 해수권을 도량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철야정진을 하며 새해를 맞을 전망이다.

●3대 관음기도 도량

▲양양 낙산사 흥련암

홍련암은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천견한 곳인 관음굴 위에 지은 암자다. 바닷가 암석굴 위에 자리잡은 흥련암은 창건 당시부터 법당 마루 밑을 통하여 출렁이는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지어졌다. 033672-2478

▲강화 낙가산 보문사
635년(신라 선덕여왕 4) 금강산 보덕굴에서 수행하던 회정(懷正) 선사 강화도에 와서 산세를 살펴보니 인도의 보타락가 산과 비슷하여 절을 짓고 이름을 '보문', 산 이름을 '낙가'라고 했다. 낙조에 붉게

개심사는 지장기도 도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허 선사 등 근대불교사의 고승들이 주석하면서 수행했던 참선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041688-2256

▲완주 종남산 송광사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송광사는 병자호란때 소현세자와 불림대군 두 왕세자의 무사환국을 기원한 호국원찰이어서인지 나라에 큰 일이 있을때면 대웅전, 나한전, 지장전의 불상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063243-868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동해 바닷가 암석굴 위에 자리잡은 해수권을 기도도량 낙산사 흥련암. 사찰에서 철야정진을 마친후 떠오르는 새해의 첫 태양과 마주하며 새롭게 발심해 보자.

물드는 마애관음보살상의 모습은 관음신신 바로 그것이다. 032933-8271

▲남해 금산 보리암
보리암이 위치한 금산은 남해 38경으로 보리암을 비롯 망대, 대장봉, 천계암 및 주세봉의 각자가 있는 문장암 등 비경이 산재해 있다. 0551862-6500

●4대 지장기도 도량

▲철원 보개산 심원사
지장영험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 심원사는 '생지장보살 도량(生地藏菩薩 道場)'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찰이다. 무학대사가 절 이름을 심원사로 고쳐 부른 이후 더욱 많은 영험담이 생겼다. 033455-5882

▲고창 도솔산 도솔암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도솔암 지장보살상은 도솔천 내원궁에 모셔져 있다.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참배객을 맞는 지장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다. 063564-2861

▲사산 상왕산 개심사

철도청 '해넘이·해돋이 테마열차' 운행

철도청이 올해 말부터 마련한 '해넘이 해돋이 특별 테마열차'에 오르면 서해안의 일출을 바라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동해안의 일출을 보면서 새해의 희망을 다질 수 있는 두가지 기회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승차권은 서울 영등포 청량리 성북 수원과 수도권 국철역에서 발매한다.

◇인면도 꽃지 해넘이, 삼척후진 해돋이=31일 운행되는 이 열차는 서울역을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 장항선 홍성역으로 향한다. 시내 연계버스를 이용, 안면도로 이동해 꽃지해수욕장에 도착하면 서해 낙조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꽃지 해변에서 힐미 할아비 두 바위섬 사이로 지는 해를 바라볼 수 있다.

◇변산반도 해넘이, 송정 해돋이=31일 운행

하는 '변산반도 해넘이, 송정 해돋이'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북 정읍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곰소만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며 채석강으로 이동해 격포에서 서해 낙조를 관광하게 된다. 다시 열차에 몸을 싣고 조용한 어촌마을인 송정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2002년을 설계할 수 있다.

◇포항 호미곶 해돋이=포항 호미곶 해돋이 열차는 오는 31일 서울역을 밤 11시30분에 출발해 포항역에 새벽 4시에 도착한다. 포항역에서 여객선터미널로 이동해 쾌속선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연중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호미곶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일출 관광을 마친후 보경사를 관광하게 된다. 문의(1544-7788)

목탁소리

윤제학 (취재2부 부장)

따옴표 없는 인용, 그것을 우리는 '표절'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창작과 학문의 세계에서 행해지는 '해적 행위'라 할 수 있겠다. 한 사회의 정신적 자산을 훔치는 파렴치한 행위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표절 행위도 교묘해진다. 아이디어 도용, 재가공, 전제(全載) 수준의 인용 끝에 알송달송한 출처 밝히기 등. 이런 형태의 교묘한 표절일수록 원저자에게 입히는 정신적 상처는 깊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창작과 연구 의욕의 상실을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 표절 행위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교계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로 떠오른 적이 없다. 전문 영역인데다 사제와 선후배로 연결된 관계가 표절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 기자는 불교계의 학

표절의 해악

술지에 실린 모 지방대학 강사 씨의 논문이 명확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불교학자가 번역한 책의 해제 부분과 번역문을 통째로 옮겨 쓴 것을 발견했다.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혀 고의성은 없다고 보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용인지를 밝히는 기본도 무시한 채 상당 부분을 옮겨 쓴 것은 표절과 관계 없이 명백한 학문적 게으름이었다.

사실 세상 어떤 영역에서든 앞선 자의 노력에 힘입지 않을 수 없다. 글자 그대로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선 행 연구가 많다는 것은 후학들에게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다. 소재의 빈곤 차원에서는 불행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칙은 간단하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확히 출처를 밝히고, 인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것이 학자적 양심이다.

도서출판 참수행



각권 10,000원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 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chamsuhaeng.co.kr
E-mail: champyc@chamsuhaeng.pe.kr

불교의식(범음법)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법)을 어렵히 접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8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 ① 송주편(도량석·조석종성 등)
- ② 예경편(상단에불·조석예불·각단에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 ③ 현공편(삼보통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천도재·49재·시타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청접수 : 2002년 1월 5일까지 전화 접수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불교의식 내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 설명을 겸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법당을 청정껏
제척드립니다.

콘크리트 성형기법의 특징

- 공사기간 단축
- 현장시공 간편
- 목조에 비해 공사비 저렴
- 목조에 비해 마감이 정밀하고 부드러움
- 화재 걱정이 없고 수명이 반영구적임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설계 및 시공
- 요사채 및 제실 설계 및 시공
- 문화재 보수 및 복원
- 전통한옥 설계 및 시공

○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필요하시면 지명원 및 설계도,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 불사를 원하시는 스님께 방문하여 상담 및 자문하여 드립니다.

근영불교건축
031)827-5787 (代)
017)211-4029 (상담전화)